



「'99 서울國際綜合電氣機器展(SIEF '99)」 개막

국내의 첨단 전기공업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99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SIEF '99)」이 10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서울무역전시장에서 개최된다.

韓國電機工業振興會(회장 : 유재환)가 주관하고 産業資源部 등 17개 기관이 후원하는 이번 전시회는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일본, EU 등 10개국 107개 업체가 참가하여 발전, 송배전, 변전 및 동력제어와 조명기기 등에 관련되는 첨단 종합 전기기기 제품이 전시된다.

특히 금번 「SIEF '99」에는 고효율,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의 첨단 신제품과 수출 유망 품목 위주의 제품이 출시됨으로써 실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고 전기공업계의 획기적인 수출 발판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진다.

금년으로 4회째를 맞는 「SIEF '99」는 전기산업의 기술력을 종합, 체계적으로 해외에 알리고 선진 각국의 첨단기술 및 정보를 습득하여 기술의 고도화와 국제화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국제종합전기기기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이번 전시회가 우리나라 전기산업의 무역수지를 크게 개선하고

21세기 국가 수출 주력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각국의 전기 관련 해외 바이어를 대거 유치하여 상담회를 개최한다.

전시기간 동안 국산 전기기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또한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본 및 동남아의 전력관련 구매관계자 등 외국 바이어를 대거 초청하고 전시회 기간동안 대기업 종합상사와 중소기업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해외 수출 경험이 적은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해외영업력이 강한 종합상사를 통한 판로개척을 위해 수출상담회를 추진하여 무역수지 개선과 수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또한, 전시회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동안 수출산업화 및 기술 개발에 공헌한 유공자를 선정, 산업자원부장관·중소기업청장·한국전기공업진흥회장 표창도 수여한다.

이밖에도 해외 전문경제지 광고 및 해외 무역관을 통해 초청장 발송과 전기관련 바이어를 발굴하는 등 그 어느해보다도 해외 바이어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그동안 세계각국의 전기관련 해외바이어를 대거 유치하였기 때문에 이번 전시회에도 1,000여명 내외의 바

이어가 내방하여 2억불 어치의 수출상담 실적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최근 IMF 금융위기 속에서 내수 부진으로 침체에 빠져 있는 국내 전기산업계에 수출활력을 불어넣고 수출 확대를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막식 행사는 '99. 10. 5(화) 11:00 서울무역전시장에서 국무총리,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한국전력공사사장 및 전기관련단체장 등 주요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컷팅, 전시장 순시, 오찬 순으로 진행된다.

'99년도 제2차 이사회 개최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지난 9월 17일 진흥회 회의실에서 이사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1999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이사회는 「'99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을 앞두고 전시회 추진 경과 보고와 함께 전시기간중 일본, 동남아지역의 전력회사 구매관계자 등 해외바이어를 특별 초청하고 국

내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함에 따라 "'9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이밖에도 "산업발전기금 징수기간 연장(안)"을 심의, 의결하고 기술개발자금 지원 등 '99년도에 본회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